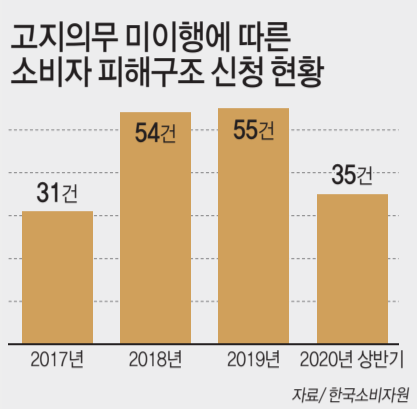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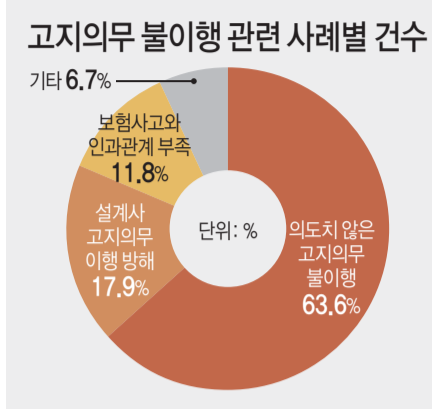


# “질병 알리면 가입불가, 숨겨도 문제”... 높아진 보험가입 문턱

경미한 질병이력 고지시 가입 난항  
고지 미이행 피해구제 신청 195건  
설계사에 고지내용 전달권한부여해야

#. A씨는 지난 2018년 가나보험사에서 간편가입 실손의료비보장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가나보험사는 지난 4월 A씨가 병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A씨가 고지하지 않은 질병은 '베체트병(만성 혈관염증)'. A씨는 "청약서 질병문표에 '단순 처방을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어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며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했다.

보험 가입 시 과거 질병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경미한 이력까지 알릴 경우 심사에 걸려 보험가입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 소비자 입장에서 알려도, 알리지 않아도 보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 알리지 않아, 못받는 보험금 늘어**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이다. 구제신청은 2017년 51건에서 2018년 54건, 2019년에 5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35건이 접수됐다.  
신청현황을 보면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124건(63.6%)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설계사의 '그 정도는 괜찮다'는 말에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35건(17.9%), 보험사고와 연관이 없는데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례도 23건(11.8%)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보험금은 평균 2480만원이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3000만원 미만 46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1000만원 미만 34건(24.8%), 100만원 미만 24건(17.5%)이 뒤를 이었다. 이 중 합의가 이뤄진 것은 52건(26.7%)으로 전체의 절반이상이 해결되지 못했다.  
통상 소비자는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포함된 질문표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 직업, 운전 여부 등 계약 체결 및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다.  
상법 제651조와 655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질병 알리면 보험 가입 어려워...**  
그러나 소비자들은 최근 경미한 질병 이력이라도 알리면 보험가입부터 막힐 수 있다고 말한다. 감기나 두통 같은 단순한 증상으로 진료받았더라도 추후 암·뇌졸중·심근경색증 등 치명적인 질병을 얻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 예컨대 B씨가 과음한 뒤 목에서 빼근함을 느껴 동네 내과를 찾아 혈압약 7일치를 처방받은 내역이 있다면 추후 뇌졸중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최근 실손보험은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져 가입이 더욱 어려워진 상태다. 서류제출 외에도 간호사의 방문 진단을 통해 혈압을 재고, 피를 뽑고, 소변 검사를 해야 가입할 수 있다. 이전에

는 일부 보험사에 한해 장년층에 한해 방문심사를 진행하던 것을 상대적으로 건강한 20대까지 확대했다. 과거 질병 이력뿐만 아니라 현재 질병 여부까지 상세하게 확인해 병원에 덜 갈 사람만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소비자들이 질병이력을 알려도, 알리지 않아도 보험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맹수석 충남대 교수는 "현행법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알아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토록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중으로 따지면 설계사를 통한 대면 가입이 많다. 상대적으로 고지선을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자 고지내용 전달 권한을 부여해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고지의무는 법에 정해진 보험계약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이행할 경우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 질 수 있다"며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현재 질병을 알리는 것뿐 아니라 직접 청약서에 상세하게 기재해 달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우리은행, 새 사령탑서 '디지털 혁신' 가속

디지털타워에 IT부문 등 이전 완료  
디지털 협업 최적화 근무환경 조성  
손태승 회장, 실무진과 소통 강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이 우리금융디지털타워시대를 열었다. 우리금융디지털타워는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사 맞은편에 위치한 우리금융남산타워다.  
우리금융지주는 디지털·IT부문과 우리에프아이에스 디지털 개발본부가 우리금융디지털타워로 이전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디지털 집무실을 함께 조성해 우리금융그룹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가 예상된다.  
우리금융디지털타워는 기존에 입주해 있던 우리은행 디지털금융그룹에 이

어 각 그룹사 디지털 부문이 합류하면서 명실공히 그룹 디지털 컨트롤타워로 자리잡게 됐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디지털 시너지 확대를 위해 디지털 협업에 최적화된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IT 자회

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 디지털 개발인력 240여명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그룹사 간 동반 기획뿐 아니라 기획에서 개발로 이어지는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손 회장의 디지털 집무실을 실무부와 같은 공간에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손 회장이 디지털 혁신 과정을 손수 챙기고 실무진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매일 오후 디지털 집무실로 이동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담아 들으며 시장보다 빠른 변화를 이끌겠다는 손 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의 디지털 혁신이 이제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서 혁신의 제2막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

## 지역상권 활성화 '우리동네 응원 프로그램'

신한은행, 소상공인 전광판 무료광고  
신한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위축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우리동네 응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동네 응원 프로그램'은 영업점 내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 및 디지털 창구 등을 통해 가게 홍보, 할인 쿠폰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신한은행의 사회공헌 서비스다. 광고 대상 업체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된 영업점 인근 소상공인이다.  
진옥동 행장의 고객중심 경영철학에



디지털 경영이 더해진 '우리동네 응원 프로그램'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전국 32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시범운영을 마쳤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답변 고객의 70% 이상이 실질적으로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안상미 기자

## NH농협銀

교차우대금리 '외화적립예금'  
NH농협은행은 원화·외화 패키지 상품 가입시 교차우대금리를 제공하는 'NH주거래우대외화적립예금'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NH주거래우대적금(원화)' 가입 고객이 'NH주거래우대외화적립예금' 가입시 0.1%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두 상품을 동시에 신규 가입할 경우에는 각각 0.1%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만 34세 이하 유스고객 및 자동이체 등록고객에게는 각각 0.05%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영업점,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안상미 기자

## KB금융, 韓기업지배구조원 ESG평가 'A+'

통합등급·환경·사회 등 전 부문  
KB금융지주는 1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2020년 상장기업의 ESG 평가 및 등급 공표'에서 국내 금융회사 중 유일하게 통합등급 및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 부문에서 모두 '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KB금융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지배구조평가'에서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지배구조를 포함한 ESG 평가 모든 부문에서 A+ 등급으로 평가 받으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ESG경영 선도 금융그룹으로 인정받았다.  
KB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ESG경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9월 그룹의 ESG 전략방향을 수립한 이후 올해 3월에는 ESG 경영 실행력 강화를 위해 윤종규 회장을 포함



서울 여의도 KB금융지주.

한 사내이사 2인 및 사외이사 7인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신설했다.  
KB금융 관계자는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해 지속적으로 ESG경영을 확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KB금융은 ESG경영 선도 금융그룹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실질적인 ESG경영 실천을 우선순위에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l@

## 케이뱅크 "조건없이 연 5% 금리 혜택"

최고 납입액 월 30만원  
케이뱅크는 아무 조건 없이 연 5% 금리를 제공하는 '햇달 적금' 2차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벤트에 응모해 당첨된 고객은 카드 이용 실적이나 상품 가입 등의 복잡한 조건 없이 누구나 연 5% 금리로 '코드K 자유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월 납입액은 최대 30만원이다.  
연 5% 금리 혜택은 추첨을 통해 선정된 고객 5000명에게 제공된다. 오는 27

일까지 케이뱅크 웹사이트나 앱의 '혜택존'에서 응모할 수 있다. 당첨자에게 28일 우대금리 쿠폰을 담은 개별 문자가 발송된다. 해당 쿠폰은 다음 달 3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가능하다.  
케이뱅크 계좌가 없는 고객 역시 웹사이트를 통해 앱 설치 없이 간단히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이벤트에 응모한 케이뱅크 신규 고객은 '햇달 적금'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케이뱅크가 제공하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안상미 기자